

# 예금금리 4%대 사라진다... 실적악화 은행, 채권에 눈돌려

저축은행 79곳 평균금리 연 3.72% 수익성 악화로 공격적 조달 지양 채권시장 진정에 은행채 발행 이득 하반기 금리상단 3%대로 하락 전망

이르면 상반기 중 연 4%대의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실적 급감에 시달리는 저축은행의 우선 과제로 비용절감이 손꼽히는 만큼 공격적인 조달을 지양하면서, 은행권도 채권시장 진정세에 정기예금 금리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3.72%다. 연초(3.96%) 대비 0.24%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회전식정기예금을 제외한 예금금리 상단은 0.30%p 떨어졌다. NH·HB·대백저축은행 등 6곳이 연 4.0%를 지급한다.

은행권도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은행권에서 기본금



저축은행의 우선 과제로 비용절감이 손꼽히는 만큼 이르면 상반기 연 4%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다. 1년물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2%로 책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계 및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연 4.4%대 정기예금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조달 기조를 앞세운 것과 비교하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금융권이 수신금리를 낮추는 배경에는 채권시장 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은행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정기예금 대비 저렴하다는 선택에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은행채(AAA, 3년물) 금리는 연 3.69%다. 지난해 10월(연 4.65%) 대비 0.96%p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반년간 꾸준히 채권금리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고금리 정기예금이 사라진 것.

은행권이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자, 저축은행도 인화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 규모가 10조원 넘게 쪼그라든 만큼 최소한의 조달 경쟁력만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이자비용이 지목되는 만큼 긴축 경영도 요구된다.

하반기에는 정기예금 금리 상단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도 저축은행 여수신이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04조2626억원이다. 전월(107조1491억원) 대비 2조8865억원 감소했다. 이어 여신잔액은 103조2171억원으로 한 달 사이 8765억원 줄었다.

단, 정기적금은 올해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목돈을 예치하는 예금상품 대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은 정기적금을 사회초년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업계에서는 적금으로 조달하는 자금이 전체 수신잔액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산한다. 수신 비중이 낮은 만큼 고금리를 적용할 여력이 충분한 것.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하나저축은행의 '잘과 정기적금'이다.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5%에 가입 일자 기준 만 12세 이하의 본인 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p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적금은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모으는 데 의미가 있는 상품이다. 주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을 모객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i119@metroseoul.co.kr

## 고금리에 정책서민금융 연체율 1년새 2배 ↑

'햇살론15' 연체·대위변제 최다 지난해 총 연체금액의 60% 차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1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연체액을 대신 갚는 비율)도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취약성 악화에 공공 지출도 함께 늘고 있는 것.

20일 양정숙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년~2023년)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액 19조9171억원 중 1조9922억원(10%)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연체 및 대위변제율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 및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21.3%의 연체율을 기록한 '햇살론15'다. 같은 기간 연체액도 1조1190억원에 달해 지난해 총 연체 금액의 60%를 차지했다.

'햇살론15'는 은행이 저소득층 및 신용점수 하위 20%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400만원(2022년~2023년 2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하에 대출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같은 기간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뱅크'의 연체율도 1년새 1.1%에서 8.4%로 7배 넘게 치솟았고,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연체율도 4.8%에서 9.4%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율 상승이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제2금융권·제3금융권 대출 공급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1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7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액은 27조원 줄었다. 제2금융권 대출 잔액도 지난해 6월 기준 14조6000억원을 기록해 2022년 말 15조9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제2금융권 및 제3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고위험 대출 수요가 몰려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것.

실제로 최근 6년간 95%가 넘는 대출 승인율을 기록한 3개 상품(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모두 지난해 연체 및 대위변제율이 10%를 상회(햇살론15 21.3%, 최저신용자특례보증 14.5%, 소액생계비대출 1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과도한 금리가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년간 공급된 햇살론15의 평균 공급 금리는 연 17.1%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대부업권 평균 대출금리인 13.6%를 크게 상회한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도 각각 15.9%, 14.5%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연체율이 0.80%에 그친 정책금융상품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연 10.5%다.

햇살론15는 성실 상환 시 매년 1.5%(5년 만기)~3.0%(3년 만기)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제공하지만, 대출만기가 3~5년에 불과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해 실제 체감 금리는 여전히 높다.

양정숙 의원은 "햇살론15는 대부업·법륜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라며 "그런데도 평균 대출금리가 17.1%인 것은 정부가 정부의 역할보다는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ABL생명, 고령화시대 간병비 경감 보험

(무)ABL THE케어간병보험 진단비·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도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간병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기준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했다. 간병인을 둘 경우 매달 4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올해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보장은 물론 선택 특약 가입 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 대비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

중증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최대 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보장받는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1~



ABL생에서 올해 출시한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ABL생명

5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항목별로 월 1회 한도로 보장한다. 경증 이상이면 매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10년동안 지급되고 중증의 경우 보장기간을 확대해 최대 100만원씩 종신토록 보장받는다.

은재경 ABL생명 영업채널담당원은 "인구 구조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며 "(무)ABL THE케어간병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병 보장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 벤츠 등 안전기준 미흡 車 판매사 '과징금'

국도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와, 한국도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과징금은 작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치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은행-성동구, '땡겨요' 서비스 시작

신한은행이 서울시 성동구청과 제휴를 맺고 '성동 땡겨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 가맹점에게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1.5%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땡겨요와 제휴를 맺은

곳은 서울특별시 6개구(강진·구로·용산·서초·은평·성동구)와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이 있다.

신한은행과 성동구청은 '성동 땡겨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성동 공공 배달앱 상품권'을 19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